

한국 근대문학과 동아시아적 맥락

— 방법론 모색 노트

구 모 룡*

차 례

- | | |
|---------------------|----------------------|
| 1. 두 가지 은유: 나무와 파도 | 3. 한국 근대문학의 동아시아적 맥락 |
| 2. 한국 근대문학 연구 방법 반성 | 4.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

1. 두 가지 은유: 나무와 파도

프랑코 모레티는 문화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나무와 파도의 은유를 동원한다.1) 다윈에서 유래하는 계통발생론적 나무는 비교문학의 도구였다. 파도 역시 역사적 언어학(가령 언어들 사이의 중복을 설명하기 위한 ‘파도 가설’)과 기술의 분산이나 농업의 확산을 설명하는(예를 들어 ‘진보의 파도’ 이론) 뿌리 은유(root metaphor)로 활용된다. 나무와 파도, 그러나 이들은 은유라는 점을 제외하고 아무런 공통점을 지니지 않는다. 나무는 통일성으로부터 다양성으로의 이행을 표현하는 반면 파도는 최초의 다양성을 삼키는 동일성으로 관찰된다. 나무는 지리학적 불연속성을 요구한다. 이와 달리 파도는 장벽을 좋아하지 않

*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1) Franco Moretti,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New Left Review* 1, Jan Feb 2000, pp.66~68.

으며 지리학적 연속성 위에서 변성한다. 나무와 가지들은 민족국가가, 파도는 시장이 집착한다. 하지만 이들은 둘 다 작동한다. 문화사는 나무들과 파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와 파도, 모레티는 이들을 세계문화를 형성하는 두 가지 기제를 나타내는 은유로 제시한다. 세계문화는 이 둘의 기제 사이에서 동요하며 불가피하게 혼합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대소설의 경우 그는 이를 확실한 파도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파도는 지역적인 전통들의 가지들과 만나고 그들에 의해 중대한 변형을 겪는다는 지적을 덧붙인다. 이어서 그가 지적하고 있듯이 나무와 파도는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에 대한 노동분할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나무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민족문화이, 파도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계문화이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물들은 항상 혼합적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무엇이 이 혼합물에서 지배적인 기제인가? 내적인 것인가 혹은 외적인 것인가? 민족인가 세계인가? 나무인가 파도인가?”

모레티의 이러한 질문은 “세계는 하나이며 문화도 하나”라는 그의 관점에서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세계문화와 무관한 듯 민족문화의 소유주를 그려온 우리의 전통에서 방법과 관점의 쇄신을 만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민족문화 혹은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적 도전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과 관련하여 모레티는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라는 방법을 제안한다. 텍스트, 정전 그리고 ‘가까이 읽기’(close reading)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식의 조건이 되는 거리를 만들라는 것이다.²⁾ 말할 것도 없이 모레티의 세계문화적 관점이 우리에게 적실한 해답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³⁾ 그의 은유에서 보듯 그는 그 어떤 헤게모니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파도에 쓸려갈 나무라는, 슬픈 이야기라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2) 같은 글, pp.56~57.

3) 모레티가 반주변부를 세계문화의 가능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점은 경청을 요한다. 또한 그가 비교 형태학의 분석 방법으로 외부적 형식과 지역적 소재 그리고 지역적 형식의 세 가지 항목이 타협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근대문학을 설명하는 틀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규, 『세계체제하의 비평적 모색들: 제임슨, 모레티, 칸클리니를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2001년 봄 · 여름호(한국비평이론학회, 2001), pp.198~206.

것이다.

동아시아라는 맥락을 생각하자는 것은 나무와 파도가 만드는 복합적 국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적절한 거리에서 두껍게 다시 쓰기라는 문제인식과 이어진다. 이래서 동아시아는 방법, 지적 실험 그리고 프로젝트 등의 개념에 상응한다.⁴⁾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 있어서 그 동안 동아시아적 맥락을 고려한 비교연구(관계론, 관련양상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근대주의가 서로 분리되어 개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복합국면을 단순화한 측면이 있거나 근대주의적 입장의 특권적 시선에 의한 소급 적용과 왜곡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적 맥락은 '민족주의와 근대주의에 호명당하는 주체'로서의 근대문학 개념을 극복하고 복합적인 형성과정에 주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2. 한국 근대문학 연구 방법 반성

우리가 현대와 다른 개념으로 근대를 사용한다면 근대는 대체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에 이르는 시기로 보는 데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이 시기 동아시아는 격변의 와중에 놓여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아시아의 역사를 통찰해온 노학자가 근대 동아시아사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을 '시간과의 경쟁'이라는 말로 집약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⁵⁾ 비록 지난 역사를 서술하는 데 쓰인 말이지만 경쟁의 시간에 사로잡힌 근대의 중국에 대한 의문을 유발하기에 족하다. 확실히 근대는 시간의 문제였다. 가령 쿠로자와 아키라의 『카게무샤(影武者)』를 통하여 최원식이 일본의 근대가 열리는 장면을 설명할 때도 우리는 각기 다른 역사의 시간과 만나게 된다.⁶⁾ 누가 먼저 서구 근대를 받아들이느냐가

4) 방법, 지적 실험, 프로젝트는 각각 다케우치 요시미, 백영서, 아리프 멀릭에 의해 명명된 것이다. 약간의 입장 차이들이 있으나 여기서 이를 엄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모두가 명시적인 것은 아니나 대안적 담론을 지향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5) 민두기, 『시간과의 경쟁』(연세대출판부, 2001).

역사 주역의 판권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동아시아에서 오랜 모순으로 남게 된—일본의 탈아(脫亞)를 가능하게 한—행운의 시간을 상기하게도 한다. 가토 슈이치의 지적처럼 일본인의 반응이 빨랐다는 것과 상대방이 경황이 없었다는 것,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빠졌더라도 일본은 구미의 압력에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세기 후반 프랑스는 프로이센과 보불전쟁을 치렀고 미국이 내전을 겪었던 바, 이러한 와중에 일본은 근대화의 시간을 벌 수 있었고⁷⁾ 마침내 서구 모방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근대에 관한 한 조선의 시간은 일본의 시간과 비교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조선의 근대는 일본적 근대와 서구적 근대가 중층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문학 연구에 있어 근대성의 문제는 핵심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에 대한 자각은 서구라는 타자와의 충격적 만남에 의해 가능했다. 아시아는 서구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의 문명적, 문화적, 민족적, 국민적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⁸⁾ 조선의 경우 서구와 서구화한 일본과의 접촉에서 국민국가(nation-state)로 가는 길을 차단 당하고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근대와 민족에 대한 인식에서 매우 복잡한 과정을 남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대 문학을 설명하는 데 동원되고 있는 내재적 발전론(혹은 이의 연장선에 있는 식민지 수탈론), 이식론(혹은 이와 같은 문맥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민족주의에 기초한 일국주의적 입장과 이를 통한 비교연구의 한계를 고찰하는 일이 요구된다.

가. 내재적 발전론과 이식론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역사라는 점에서 내재적 발전론은 분명한 한계를 지녔다. 이것이 추구하는 자생적 근대 찾기의 노력은 일국적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나, 우선 자력으로 근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외적 강제에 의해 차단되거

6) 최원식, 「한국발(發) 또는 동아시아발(發) 대안?」,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문학과학지성사, 2000).

7)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이산, 2000), pp.15~16.

8)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 「염치없는 내셔널리즘」, 『당대비평』 2000년 겨울호, p.224.

나 왜곡되었다는 역사 밖의 전제가 문제이고, 다음으로 외재적 기준에 의해 탐구의 대상이 판별되었다는 점에서 오리엔탈리즘과 무연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내재적 발전론은 실제 역사와 다른 가정과 외재적 시점을 지니고 있다. 강상중에 의하면 이것이 정제된 비서구 사회의 심상지리가 그려지게 만든다. 여기서 그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경제와 증척되는 견고한(solid) 사회에 내재적 발전이라는 지적 틀은 발전단계의 차이를 낳는 비서구 사회의 역사적인 본질에 대한 해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근대 오리엔탈리즘은 ‘일종의 비교연구’가 된다.”⁹⁾ 물론 내재적 발전론의 의의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재적 발전론이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시기가말로 근대의 본질을 알려주고 근대 극복의 계기를 제공하는 처소라는 점에서 여전히 주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발전론이 연속성의 계기를 만들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¹⁰⁾

실제에서 이식론이 재평가되는 것은 마땅한 이치이다.¹¹⁾ 김철은 임화의 이식론에 대한 전통주의자(혹은 내재적 발전론자)들의 비판이 “축구 시합에 졌다고 축구 해설자를 비난하는 일”과 같다고 비판다. 이처럼 조선의 세계체제로의 강제 편입은 시간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일에 속한다. 임화의 발빠른 적응을 기분 나빠하기에는 근대의 시간이 너무나 급박했던 것이다. 임화의 이식론은 단순한 단절론이 아니라 근대성 기획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이광수 등과 함께 임화의 근대성은 세심하게 분석될 사안이어서 쉽게 요약될 수 없는 일에 속한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조선이 내재적인 역량과 무관하게 외적 강제에 의하여 근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계체제의 주변부로서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을 지녔었기 때문이다.

9) 강상중(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7), p.85.

10) 이러한 점에서 1900년대에 대한 면밀한 세부 검토는 우리의 근대가 지닌 내용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소명, 1999);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개념 형성과정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권보드레, 『한국근대소설의 기원』(소명, 2000) 등.

11) 김철, 『국문학을 넘어서』(국학자료원, 2000), pp. 26-29.; 구모룡, 『제유의 시학』(좋은날, 2000), p.14.

나. 일국주의적 관점

내재적 발전론과 이식론은 동일한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전자가 서 있는 민족주의와 후자의 근대화가 조선 민족의 근대 문제라는 공통된 관심의 지평 위에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들 모두 근대화를 보편적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주체로 조선민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자본주의·식민지·민족이 함께 보일 리 없다. 한편으로 주체인 민족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과도한 열광을 보이거나 보편적인 근대성의 획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모두 국민국가적 강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럴 때 근대문학 연구는 사실을 떠나 새롭게 편집될 뿐이다.

민족주의적 입장은 현재의 내셔널리즘을 기억과 역사에 투사하여 자기동일성을 강화한다. 근대의 민족이 상상된 공동체라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¹²⁾ 동아시아의 경우 서구라는 타자에 의해 민족은 상상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에 문화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언어, 출판, 교육, 문학 등등을 통해 민족 동일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국어와 국문학도 이러한 상상된 민족공동체의 이데올로기를 담보한다. 그런데 이처럼 가공된 민족주의는 기억과 역사를 왜곡한다. 중화주의 이데올로기가 중국의 신화들(myths)을 신화체계(Mythology)로 변화시켰듯이¹³⁾ 이성시에 의하면 동아시아의 고대는 동아시아 국민국가의 역사 전유에 의한 ‘만들어진 고대’에 불과할 따름이다.¹⁴⁾ 근대문학 연구에 있어서 저항과 창조를 등질화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개입은 허다하다. 일국주의-민족주의-애국주의는 쉽게 접합한다.

근대성을 척도로 삼는 근대주의는 외재적 시점을 특권화한다. 서구 근대문학과 그 이론에 맞춰 조선의 근대문학을 해석하고 비판한다. 자주 문학의 자율성이나 미의 보편성을 해석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아직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발생론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텍스트의 권력에 의존한다. 이는 이론의 역사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적 근대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적 근대

12)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사회비평사, 1991).

13) 정재서, 「서사와 이데올로기」, 『동아시아, 문체와 시각』(문학과 지성사, 1995).

14) 이성시(박경희 역), 『만들어진 고대 -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삼인, 2001).

를 모방한다. 근대문학 연구에 있어서 근대문학을 완결된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허다하다. 외재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의 교섭과 혼합 그리고 협상 과정을 기술하기보다 외재적 관점에서 근대문학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의 근대문학은 항상 미학적 미달상태에 불과한 것이다.¹⁵⁾

다. 비교연구

모든 연구는 비교연구라 할 수 있다. 주체의 입장이란 타자의 전제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적 방법으로 비교연구를 상정할 때 비교는 우선 차이에 주목한다. 초기의 민족학자들은 대부분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서구 학자들의 특권적 시선인 서구중심주의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나중에 같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피할 수 없었다.¹⁶⁾ 이러한 까닭에 비교연구는 식민지정책학의 방법으로 선호된다. 근대 일본의 식민지정책학은 자신을 보는 쪽 즉 서구에 입지점을 접근시켜 제국의 심장 지리를 형성한다. 이는 ‘보는 쪽=대표하는 쪽=보호하는 쪽과 보이는 쪽=대표되는 쪽=보호받는 쪽’의 비대칭적 이항대립 관계로 표출된다.¹⁷⁾ 이러한 특권적 시선은 특권적 지식을 형성하는데 식민지를 ‘이상계통(異常系統)으로 차별화하는 이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이드는 근대의 비교연구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15) 방법과 이론 그리고 실천에서 우리 근대문학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인 김윤식 교수는 그간의 연구 역정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는 바, 일국주의적 한계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국가와 자본제 생산양식을 보편성으로, 반제투쟁과 반봉건투쟁을 특수성으로 상정하면서 이들 관계항의 맞물림을 헤아리는 과제를 근대사가 안고 있다는 시선에서 본다면, 지난 세기는 이 나라 근대사에 형언하기 어려운 굴절과 상처를 남긴 것으로 인식됩니다. 연구자들의 시선이 이 거대담론에 이어진 이데올로기적 과제로 기울어졌음이 이 사실을 잘 말해 주었지요. 문학 연구자들의 경우도 큰 테두리에서 보면 이러한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카프에 대한 민감한 반응, 반제투쟁에 관한 줄기찬 관심, 모더니즘적 성향에 대한 지속적 비판 등등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김윤식,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서울대출판부, 2001), p.iii.

16) 전경수, 『문화의 이해』(일지사, 1999), pp.81~83.

17) 강상중, 앞의 책, p.89.

규정했던 것이다.¹⁸⁾

근대문학 연구에서 비교연구 또한 오리엔탈리즘에 가깝다. 영향사와 전과론에 의존하는 이것은 연구자를 보는 쪽의 위치로 특권화시킨다. 스스로 시선의 주체가 됨으로써 근대문학을 타자화한다. 조선의 근대문학과 서구문학을 비교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대문학자들은 스스로를 서구적 주체와 동일화하면서 우월한 위치에 서는 새디즘적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그 근본에 있어 서구에 대한 노예적 위상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확실히 맥락을 무시한 비교연구는 비교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의 적정수준이라는 명제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맥락을 고려한 비교라는 측면에서도 동아시아의 방법은 유용하다. 서구문학과 자민족 문학을 비교하는 일국적 시각은 여러 가지 오류를 파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국 근대문학의 동아시아적 맥락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동아시아라는 문제설정에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중심부-반(半)주변부-주변부로 구성되는 세계체제를 설명하는 데 동아시아는 매우 자의적인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체제론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시간과의 경쟁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동아시아 내부를 전근대와 근대에 걸쳐 살피는 일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나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조선의 근대문학을 살피는 것은 우리의 근대성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동아시아는 세계체제의 하위체제가 아니며 하나의 방법이 된다. 우리는 한편으로 세계체제를 이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를 동아시아의 구체적인 역사에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즉 세계체제와 연동된 동아시아 삼국의 근대를 살피며 조선의 근대문학을 설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는 아니나 동아시아라는 문제들을 강조하는 데에 세계체제를 변화시켜 미래를 타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반체제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담론을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일본의

18) 에드워드 사이드(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1991).

포스트모던 전략²⁰⁾과 결부시키는 것은 단견이다.

가. 근대 기원의 지역문화론

강상중은 근대 조선을 똑같이 동아시아 구제국(중화제국)의 문명권에 속하면 서도 이 구래의 동아시아 제국적 관계를 계승하며 유럽적인 주권국가를 확립한 다고 하는 근대 일본이 지닌 '자기 모순'의 이음매에 자리잡고 있다²¹⁾고 그 위 상을 요약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의 일본 모순과 근대 조선을 설명하는 데 요 긴하다. 다시 말해서 근대 세계체제에서 조선은 대단히 궁색한 위치에 놓여 있 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대한 반작용이 민족주의와 근대주의에 대한 과 잉담론을 유발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민족(국민)국가에 기반한 민족(국민)문 학적 시각으로 전유된 근대문학은 실재가 아니라 가상에 가깝다. 여기서 사물 의 실제에 이르기 위해 근대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기술하는 태도가 요구 된다. 즉 과거에 대한 민속지적 검토(ethnographical research)가 요청되는 것이 다. 우선 이러한 일에 있어 두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연구의 대상을 기원의 근대에 두는 것이고 그 둘째는 연구의 방법으로 문화론을 도입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과 방법을 아울러 근대 기원의 지역문화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기원은 대체로 계몽이 지배담론으로 형성되었던 1900년대의 십수년에 해당한다. 개화기라는 타자 지향의 개념과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애국 계몽기라는 용어를 벗어나 근대 계몽기로 불리는 시기이다.²²⁾ 고미숙의 지적처럼 근대계몽기는 문자 그대로 '기원의 공간'이다. '해방공간'처럼 그 어떤 가능성

19)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최근 최원식 교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한반도를 세계체제와 동아시아의 결절점으로 보면서 우리 문학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운동과정과 결부시키는 한편, 이를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세계 선택과 연관시킨다. 최원식, 『문학의 귀환』(창작과 비평사, 2001).

20) 이는 전후 아시아주의를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관시켜 다시 아시아로 복귀하려는 일본의 문화전략을 뜻한다.

21) 강상중, 앞의 책, p.91.

22) 이러한 명칭문제에 대한 것은 고미숙, 『근대계몽기, 그 생성과 변이의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비평기계』(소명, 2000), pp.218~222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1900년대로 하자는 제안도 있다. 권보드레, 앞의 책.

을 향해 열려져 있었던 것이다. 마치 현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해방공간을 세밀하게 탐사해야 하듯이 근대를 알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럼에도 문학에 대한 근대적 관점의 투사에 의해 회색의 지대로 남겨 있었던 공간이다. 근대적 문학개념을 충족하는 양식, 형태, 장르가 없었기 때문이다. 리터레처의 역어에 해당하는 근대적 문학 개념이 등장한 것은 대체로 이광수의 「문학이란 하오」(1916년 11월)에 와서라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²³⁾ 그렇다면 근대 계몽기에 근대적인 문학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 시기의 중요성에 비해 전근대와 근대를 이어주는 과도기로 보고 이 시기의 문학을 과도기적 형태로 간주하는 것도 문학중심적 단순화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문화론이 요청된다.

정치와 경제의 층위와 달리 문화의 층위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다. 이것은 종족과 집단 그리고 개인을 가로지른다. 따라서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란 있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문화는 종족과 종족,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사이를 구별하는 방식이고 양식이다. 문화는 사회구성체의 역동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이러한 문화는 먼저 역사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집단 내지 사회체제 내에서 일부의 사람들의 이익을 같은 집단의 다른 사람의 이익에 반대하여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덮개로 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문화의 용법은 혼잡되며 자본주의 세계체제인 근대 세계체제 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장되며 발전한다.²⁴⁾ 근대 계몽기는 근대가 열리는 '기원의 공간'으로 '단지 중세 봉건 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했다는 거시 정치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유체제와 삶의 방식, 규율과 습속 등 구성원 개개인의 신체를 변환시키는 차원'까지 아우른다.²⁵⁾ 다시 말해서 근대 세계체제로 편입되면서 '지역문화'geoculture가 확장되고 발전하는 장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학중심주의적 관점(실제 이러한 관점은 현대에 와서 형성된 것이다)

23) 황종연, 「문학이라는 譯語」, 『한국문학과 계몽담론』(새미, 1999); 김동식, 앞의 논문; 권보드레, 앞의 책. 참조.

24) 이메뉴얼 윌러스틴(김시완 역), 『지정학과 지역문화』(백의, 1995), p.216. 원제와 달리 번역서의 표제는 '변화하는 세계체제 탈아메리카와 문화 이동'으로 되어 있다.

25)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책세상, 2001), p.11.

을 탈피하여 근대를 지역문화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론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져야 할 것은 근대 계몽기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언어능력(literacy), 문화능력(부르디외의 문화자본), 언론과 출판 등 각종 문화 제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할, 공공영역의 형성, 교회와 병원 등 서구 근대적인 제도 등등²⁶⁾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문학에서 역사학과 문화연구로 관심을 이동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화론의 차원에서 다양다기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적 문학이 이식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수용자도 형성되었다는 분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근대 문학연구는 작가의 권위(작가author는 권위authority에 연원한다)에 절대성을 부여하거나 텍스트의 권력을 맹신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문학생산에 있어서 근대적 주체라는 관점이 여과없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형(pattern)과 구조(structure)의 도출에 집중하면서 맥락(context)을 놓쳤던 것이다. 근대 계몽기의 사례는 이러한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된다. 그 시기는 계몽담론을 둘러싸고 개인과 집단들이 협상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다. 협상과정(그람시의 헤게모니에 상응하는)으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이 적실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시기이므로²⁷⁾ 민족, 국가, 자유, 개인 등등의 이념소들이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는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나. 근대 세계체제와 식민지 조선의 근대성

근대문학연구에서 작가연구에 치중하거나 텍스트에 한정하는 것은 민족주의라는 정치적 무의식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표나게 민족주의적 관점을 견지한

-
- 26)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강명관, 고미숙, 김동식, 권보드레 등에 의해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다. 이들의 문제의식이 대중문화연구에 중심을 둔 포스트모던 문화연구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유물론에 가깝다는 점에서 자각적임을 알 수 있다.
- 27)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를 대항 헤게모니, 대안 헤게모니, 지배 헤게모니의 역동성 안에서 이해한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문화를 잔존문화, 동시대 문화, 생성적 문화의 역사적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과정에 헤게모니 차원이 개입한다고 보았다. 레이먼드 윌리엄스(이일환 역), 『이념과 문학』(문학과지성사, 1982).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와 달리 작가와 텍스트로 연구의 영역을 한정
한 연구자도 식민지적 근대의 실상을 회피하려는 민족주의적 입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민족국가라는 일국적 모델이나 민족주의에 호명되지 않은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가치 중립을 표명한 경우에서도 최종심급에서 민족으로
귀환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모레티의 충고를 받아들여 좀더 멀리
서 보면 동아시아 속의 조선, 근대 세계체제 속의 조선이 민족주의의 분식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근대 계몽기의 용광로와 같은 담론들이 1910년 합
병과 더불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는 연구 결과²⁸⁾가 시사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
까? 민족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인 만큼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체제가 형성되었음
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즉 대동아공영권은 한갓 이데올로기가 아니
었으며 현실이었던 것이다. 종래의 중국 중심의 위선 서열적 질서가 일본 중심
의 폭력적 질서로 변전된 것이다.²⁹⁾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일본의 제국주의가
옳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근대와 근대 문학에 바른 접근 방법이
요청된다. 여기서 두 가지 근대의 중첩 국면에 대한 인식 문제가 제기된다.

식민지 조선의 두 가지 근대는 식민적 근대와 서구적 근대이다. 전자는 일제
에 의해 이식된 근대를 의미하고 후자는 일제 배후의 원천으로서의 근대를 뜻
한다. 그 동안 조선의 근대는 수탈이나 발전이나의 서로 상이한 관점에서 접근
되어 왔다.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립이 그것이다. 문제는 둘 다
옳다는 데서 유발되며 나아가 진정한 대립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극복되어
야 하는 관점이다. 앞서 내재적 발전론과 이식론에서 보았듯이, 이들 모두 근대
화와 민족주의를 내장하고 있다. 일제가 수탈하였기에 제대로 근대화가 되지
못했다는 관점과 일제가 식민지 형태이나나 조선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바 있
다는 관점에서 견해의 차이를 넘어 대립에 상응하는 내용은 없는 셈이다. 이러

28) 김동식, 앞의 논문, p.92. 강제 합병 이후 대부분의 제국주의자들은 망명을 갔다.
이러한 공백을 메운 것은 유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언론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
한다. 반면 일본 유학생들은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문화적 장애
등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상황이 급격하게 보수화된 국면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일본중심의 동아시아체제 형성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29) 지명관, 『전환기의 동아시아』,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문학과 지성사, 2000),
p.26.

한 지점에서 자본주의 근대 세계체제라는 관점의 개입이 요청된다. 즉 일국적 차원을 넘어 식민적 근대와 서구적 근대를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지평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³⁰⁾

서구적 근대로 식민적 근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발상은 가능하지 않다. 가령 근대 계몽기 이후 서구 근대의 표상인 기독교 담론의 추이는 식민지 근대와 관련하여 세심한 분석을 요한다. 기독교와 식민지 규율 권력과의 접합과 함께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접합이 동시에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국주의에 접어들면서 일제가 자국과 식민지에서 탄압의 대상으로 삼은 사상은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이다. 둘 다 아시아주의에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문학 연구에 있어 동아시아적 맥락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서구 근대에 대한 대안으로 아시아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택일 강요받은 것이다. 이 점은 모더니즘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³¹⁾ 아시아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의

30) 배성준, 「'식민지 근대화' 논쟁의 한계 지점에 서서」, 『당대비평』 2000년 겨울호, pp.161~178. 식민지 조선의 근대 이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배성준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식민지는 민족 형성에 필수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내적 구성 부분이다.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한 이후에는 민족 국가 사이의 지배와 종속이라는 방식으로 중심부에 의한 주변부의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식민지가 독립하기 이전에는 식민 지배가 주변부를 지배하는 주된 형태였을 것이란 점에서 식민지는 세계 경제의 내적 구성 부분이며, 세계 경제는 출발부터 식민지를 그 존재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의 모든 민족은 식민화의 산물이며, 식민지는 근대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pp.177~178).

31) 이 점에서 1900년대 후반 동경 유학세대 노신과 홍명희·이광수를 비교하고, 프롤레타리아 운동 세대인 임화와 호풍·주양을 비교한 전형준의 논의가 주목된다. 그는 이러한 비교 끝에 전자의 경우에 대하여 “1900년대 후반 동경 유학 세대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회적 실천과 문학적 실천이 분리된 데 반해 중국에서는 양자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 분리와 통일의 숨은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기고, 후자의 경우 “서로간에 화해할 수 없는 대립·대결 관계를 보였던 주양과 호풍을 우리는 임화라는 한 몸에서 모두 발견하는 것이다. 이 분리와 통일에 숨어 있는 원리를 길어낼 때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프로문학이라는 개별성과 동아시아 프로문학의 보편성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하여 하나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아마 이에 대한 손쉬운 답으로 조선의 식민지 상황과 중국의 반(半)식민지 상황이라는 맥락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 전형준, 「한·중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pp.280~285.

지배이데올로기이다. 메이지 이후 아시아를 타자화해온 일본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근대적인 지배전략에 해당한다.

어떤 의미에서 식민지는 ‘근대의 실험실’이라 할 수 있다.³²⁾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와 동떨어진 근대 담론이란 없을 것이다. 조선의 근대 문학 또한 이러한 식민지의 근대 담론인 것이다. 따라서 주체/타자의 이분법적 도식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식민지 근대라는 관점에서 근대문학을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조선민족/일제의 도식이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식민지 일상과 풍속에 대한 두꺼운 기술로써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조선인의 생활 세계를 세밀하게 추적하여 근대가 식민지민의 신체에 육화되는 과정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에 있어 언어 문제는 조선어/일본어의 대립으로 설명될 수 없다. 국어의 순수성이 곧 종족의 순결성을 담보한다는 민족주의적 발상은 식민지 현실의 실제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문자능력의 문제를 추적함과 아울러 1900년대의 국어 표기법 논의를 뒤로하고 합병 이후 조선어/일본어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호언어적 실행(translingual practice)과 이중언어적 실행(bilingual practice)이 주목되어야 한다. 전자는 근대와의 접촉에서 기의가 바뀌거나 새로운 번역어가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된다.³³⁾ 이미 언급한 역서로서의 근대적 문학 개념³⁴⁾을 위시하여 국가, 민주주의, 자연, 예술³⁵⁾ 등등 번역된 근대성으로 포괄될 수 있는 말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말의 질서가 사물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근대는 새로운 언어의 체계에 다름 아니다. 후자의 경우 조선문인의 일본어 사용과 관련된다. 이인직과 이광수 등이 일본어로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고 구상은 일본어로 하고 조선어로 글을 쓴 염상섭 등을 비롯하여 일본에 유학한 대부분의 조선문인들은

32) Ann Laura Stoler, *Race and the Education of Desire*(Duke Univ. Press, 1995), p. 15. 여기서는 강상중, 앞의 책, p.15에서 재인용.

33) Lydia H. Liu,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 -China 1900-1937*(Stanford Univ. Press, 1995). 황중연, 김동식, 권보드레의 앞의 글 참고.

34)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학 개념의 형성에 대한 것은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김채수 역), 『일본의 문학개념』(보고사, 2001)을 참고할 수 있다.

35) 이에 대한 것은 권보드레, 「번역어의 성립과 근대」, 『문학과 경계』 2001년 가을 호와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철학과 현실사, 2000) 참고.

이중언어적 글쓰기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를 민족주의적 언어관을 대입하여 친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방직후 김사량과의 논쟁에서 이태준이 보인 태도는 궁색하다.³⁶⁾ 이태준은 국민국가가 태동하는 해방공간의 시점에서 식민지 현실을 왜곡한 셈이다. 국민국가는 항상 밖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밖의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안을 동질화한다. 이러한 과정에 국어, 국문학, 국사 등의 이데올로기가 요청되었던 것이다.³⁷⁾

친일문학의 문제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친일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친일문학에 접근하는 데 있어 민족주의의 유일론적 담론은 경계되어야 한다. 친일행위를 고발하고 부역자를 처결한다고 식민지 근대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 생활과 구체적인 신체를 변형시킨 식민지 제도와 규율권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것이 문학(문화)을 통해 내면화된 양상을 밝히는 일이 진요하다.³⁸⁾ 식민성과 근대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제국주의 일반은 근대적 제도를 식민지에 도입함으로써 주민을 식민지적 질서에 편입시키고 스스로를 재생산하도록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책략이 문화적 층위에서 변함없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문화적 층위에서 토착적인 것과 서구적인 근대와 식민지적 근대가 지속적으로 경쟁, 갈등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식민적 근대성은 이중성을 지닌다.³⁹⁾ 근대 문학연구에서 이러한 이중성에 주목하면서 문학을 통하여 식민지적 근대의 경험을 두껍게 기술하는 것은 여전한 과제에 속한다.

36) 김윤식, 앞의 책, pp.3~35.

37) 이 점에서 재일문학, 재중문학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hybrid, diaspora 등의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일문학(재일동포문학이 아니라)에 대한 이연숙 교수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21세기에 구상하는 새로운 문학사론』(민족문학사연구소 2001년 심포지움 자료집).

38) 이러한 점에서 미당 서정주의 시를 일본신화의 상상력과 관련하여 해석한 김환희의 『국화꽃의 비밀』(새움, 2001)이 시사하는 바 있다.

39) 김진균·정근식, 「식민지체제와 근대적 규율」,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2000), pp.18~22.

다. 동아시아 문학과 세계문학

동아시아문학은 동아시아가 서구의 고안물이었듯이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할 대상이다. 이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며 역사성과 맥락성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다. 또한 분명하게 형성된 정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본질주의에 의한 것이든 언어와 권력에 의한 것이든 기존의 모든 정체성 담론은 의심의 대상이다. 본질주의적인 기원의 동일성을 내세우거나 언어로 호명하거나 규율권력으로 신체를 길들여 만들어진 정체성이란 그 어느 것도 일면적임을 면치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문학은 본질로 가정된 전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 근대가 만든 아시아주의나 그 생활양식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형준이 말하고 있듯이 “동아시아 각국 문학들간의 공통된 문학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그것들 사이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 및 그 구현이라는 현재성의 과제를 추구해 가는 하나의 과정”⁴⁰⁾이다.

동아시아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근대문학사는 다시 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점은 근대 이전의 문학에도 적용될 것인데 중세적 중화체제가 문제될 것이다. 근대 세계체제에서 동아시아문학이라는 중간항을 만드는 것은 근대 세계체제에 상응하는 세계문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조선의 근대와 근대문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동아시아라는 틀이 훨씬 요긴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여전히 유효한 바, 서구 중심의 세계문학론에 대한 경계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중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근대의 한국어-일본어와 다르게 한국어-영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동일한 차원의 이행으로 보는 것은 문화의 복합적인 국면을 몰각한다. 브르디외의 장 이론을 세계문학을 설명하는 틀로 전용한 파스칼 카자노바는 주변부 문학의 전략으로 이중언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⁴¹⁾ 이를 소수문학인 한국문학의 미래와 연관시킬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세계문학의 보편논리를 성급하게 한국문학

40) 전형준, 앞의 글, p.279.

41) 박성창, 「문학의 그리니치 천문대는 어디에 있는가」, 『세계의 문학』 2001년 가을호, pp.165~168. 카자노바는 주변부 문학의 가능성으로 소수국가의 문학이 중심부에 이의 제기하는 양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동화, 반항, 혁명의 패턴이 그것이다.

에 적용하는 것은 문화가 만나는 조건들의 차이들을 간과하기 쉽고, 자칫 이미 '재가된 비전'을 강요할 공산도 큰 것이다.⁴²⁾ 이러한 점에서도 동아시아문학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근대문학을 설명하는 일이 많아져야 한다.

4.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의 산물이듯이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의 산물이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서 민족주의의 타자성은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타자의 거울에 비친 주체란 또 다른 타자에 불과할 것이다.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와 닮았다든가 나아가 공범관계에 있다는 주장들이 틀리지 않은 것은 공생의 조건에서만 아니라 둘 모두 동화와 배제라는 동일성의 원리를 경배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적 서사는 극복되어야 한다. 민족주의로써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것은 항상적인 노예 상태를 의미할 뿐이다.⁴³⁾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났다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구의 산물인 오리엔탈리즘이 우리 속에 내면화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서구적 오리엔탈리즘에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이 포개지고 다시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이 겹쳐져 있는 형국이다.

근대문학 연구에 있어 우월과 비하의 이중 구조인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는 일은 그 실재에서 우리 근대의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는 데서 찾아질 것이다. 민족주의적 과장과 서구적 보편주의에 의한 특권적 개입을 극복하기 위한 실사구시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적 맥락론은 동아시아라는 보다 큰 담론을 통하여 서구에 응전하려는 욕시엔탈리즘과 무연하다. 또한 전통으로 선블리 근대를 대체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보다 식민지 근대

42) 카자노바에 대한 비판은 크리스토퍼 프렌더가스트, 『세계문학 협상하기』, 『세계의 문학』 2001년 가을호. 참고.

43) 주인은 싸워 이김으로써 등장하는 자이고, 노예는 산다는 것이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이다. 앨리스 캘리니코스(박형신 외 역), 『이론과 서사』(일신사, 2000), p.54.

-동아시아-근대 세계체제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럴 때, 주체와 타자, 민족과 제국,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전근대와 근대 등의 이분법에 의해 편집된 환상을 벗어나 대화, 혼합, 잡종, 협상 등의 새로운 구성방식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숙, 「근대계몽기, 그 생성과 변이의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비평기계』, 소명, 2000.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 구도룡, 『제유의 시학』, 좋은날, 2000.
- 권보드레, 「번역어의 성립과 근대」, 『문학과 경계』 2001년 가을호.
- 권보드레,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00.
-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 김용규, 「세계체제하의 비평적 모색들: 제임슨, 모레티, 칸클리니를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2001년봄·여름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01.
- 김윤식,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출판부, 2001.
- 김진균·정근식, 「식민지체제와 근대적 규율」,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2000.
- 김철, 『국문학을 넘어서』, 국학자료원, 2000.
- 김환희, 『국화꽃의 비밀』, 새움, 2001.
-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 현실사, 2000.
- 민두기, 『시간과의 경쟁』, 연세대출판부, 2001.
- 박성창, 「문학의 그리니치 천문대는 어디에 있는가」, 『세계의 문학』 2001년 가을호.
- 배성준, 「'식민지 근대화' 논쟁의 한계 지점에 서서」, 『당대비평』 2000년 겨울호
-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21세기에 구상하는 새로운 문학사론』,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년 심포지움 자료집.

- 전경수, 『문화의 이해』, 일지사, 1999.
- 전형준, 「한·중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0.
-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 1999.
- 정재서, 「서사와 이데올로기」,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 지성사, 1995.
- 지명관, 「전환기의 동아시아」,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2000.
- 최원식,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1.
- 최원식, 「한국발(發) 또는 동아시아발(發) 대안?」,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0.
- 황종연, 「문학이라는 譯語」, 『한국문학과 계몽담론』, 새미, 1999.
- 강상중,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2000.
- 사카이 나오키, 「염치없는 내셔널리즘」, 『당대비평』 2000년 겨울호.
- 스즈키 사다미, 김채수 역, 『일본의 문학개념』, 보고서, 2001.
- 이성시, 박경희 역, 『만들어진 고대—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2001.
- I. 윌러스턴, 김시완 역, 『지정학과 지역문화』, 백의, 1995.
- A. 캘리니코스, 박형신 외 역, 『이론과 서사』, 일신사, 2000.
- B. 앤더슨,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사회비평사, 1991.
- C. 프렌더가스트, 「세계문학 협상하기」, 『세계의 문학』 2001년 가을호.
- E.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 Franco Moretti, Coniectures on World Literature, *New Left Review* 1, Jan Feb 2000.
- Lydia H. Liu,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Stanford Univ. Press, 1995).
- R. 윌리엄스, 이일환 역, 『이념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Abstract>

The East-asian Context on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Ku, Mo-Ryong

I thought the necessity of new method on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So I criticized the nation-state perspective and nationalism. To understand Korean Modernity accurately we must establish the problematic of world-system and consider the east-asian context with geo-culture.

We will study newly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in the east-asian context. In this paper I introduced some problems. (1)The limits of one national perspective and comparative studies (2)The necessity of cultural studies on literature (3)The importance of the 1900s in Korean literary history (4)The scientific research on the colonial modernity of modern Korea(1910-1945) (5)The view-point of world literature.